

INVITATION

신영자산운용 2019 투자자 포럼 초청

- 펀드운용 보고 및 펀드매니저와의 대화 -

【 모시는 말씀 】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그동안 신영자산운용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올해에도 투자자포럼을 개최하여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펀드매니저와의 대화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자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시 간 | 14:00~16:30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자세한 위치 등은 참가신청시 확인 가능)

참가신청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syforum2019.c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산운용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2018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10월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교역비중이 큰 한국이 타격을 받으며 2017년 상승분을 반납하고 상승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펀드 성과는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유동성 파티의 종언과 금리인상 등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그간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며 긴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이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내 경기도 둔화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하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빛은 늘어나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저하 등 자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시가 배당수익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지만 단지 이 한가지 사실이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경제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선별하여 충분히 싼 가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22여 년간 고수해 온 이른바 "가치주" 투자입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해 왔고 항상 결과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2018년의 투자성고가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투자환경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성과를 돌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신영자산운용은 임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기회를 발견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4회째를 맞는 투자자포럼※ 에서 이러한 저희 펀드 투자전략과 향후 운용계획을 펀드매니저와 함께 짚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회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만큼, 저희 또한 운용을 임함에 있어 한걸음 더 진지한 자세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 신영자산운용 투자자포럼 : 2019년 3월 14일(목)오후2시~코엑스 오디토리움)

저희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운용기간 : 2018. 9.25. ~ 2018.12.24.



목 차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 ▶ 펀드구성
- ▶ 재산현황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기간(누적) 수익률
- ▶ 손익현황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 총보수, 비용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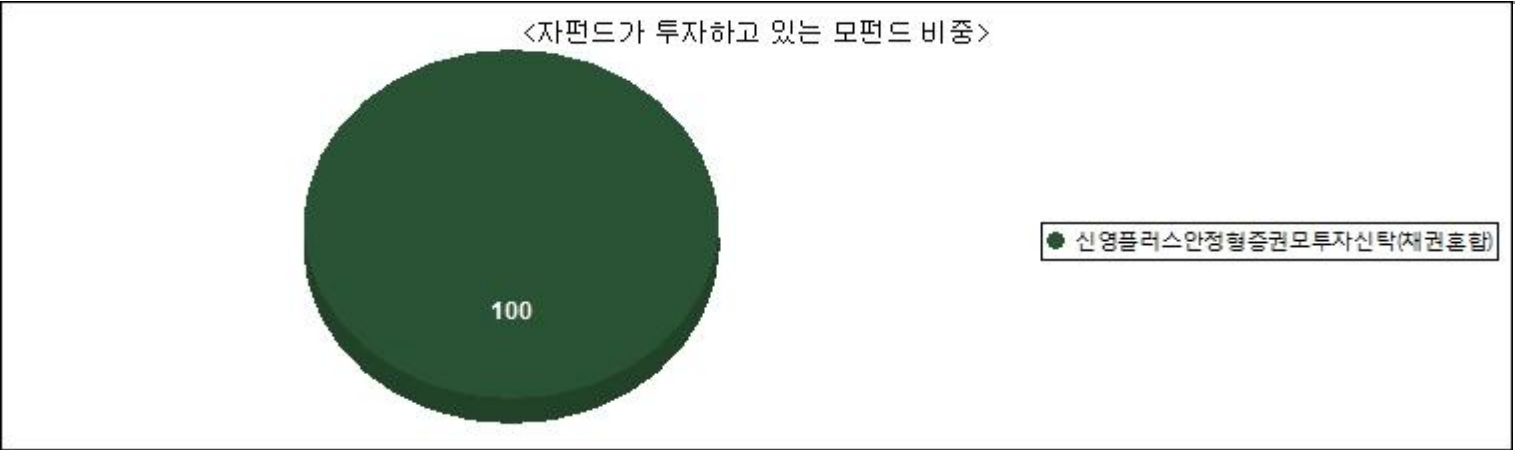
<참고-펀드 용어 정리>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2호(채권혼합)		48671	5등급(낮은위험)
펀드의 종류	혼합채권형, 추가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05. 4.20.
운용기간	2018. 9.25. ~ 2018.12.24.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KEB하나은행(유추열)
판매회사	신영증권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자산의 15% 이내에서 저평가된 우량가치주 및 공모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 펀드구성



※ 자펀드가 투자 중인 모펀드 비중 및 구조를 보여줍니다.

※ 상기 그래프 및 구조도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현금성 자산등을 제외한 모펀드들의 투자비중을 100%로 가정하여, 각 모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모펀드 투자비중은 순자산 기준 투자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	자산 총액(A)	1,635	1,588	-2.87
	부채총액(B)	8	8	-0.98
	순자산총액(C=A-B)	1,627	1,580	-2.88
	발행 수익증권 총 수(D)	1,646	1,646	0.00
	기준가격 ^{주)} (E=C/Dx1000)	988.69	960.18	-2.88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채권혼합)은 지난 세 달간 -2.88%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비교지수 수익 -2.94%을 0.06%pt 상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벤치마크): 국공채 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주식 부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펀드에서 시장대비 보유비중이 높은 전기가스 업종의 성과가 좋았던 것이 원인입니다. 10월들어 중미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시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KOSPI는 한때, 2000pt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기업 실적 둔화등의 악재가 겹쳤고, 한국시장을 중국시장의 프록시로 판단한 외국인 매도가 가속되며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후 시장은 무역전쟁과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뉴스에 따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연준의장의 해임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장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어주에 속한 전기가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징계, 셀트리온 불량딜로 인하여 바이오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종이목재, 2019년 이익둔화가 우려된 전기전자 업종등의 하락이 큰 편이었습니다. 반면, 그 동안 낙폭이 과대하였고 19년 지배구조 변화 및 이익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필수 소비재 관련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하락장에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펀드는 온라인 결제관련 종목 중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매매를 시행하였으며, 우유업체간에 밸류에이션 갭이 있는 종목간에 교체매매를 시행하였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경기 민감주 중 낙폭과대 종목을 신규매수 하였습니다.

[공모주 부문]

최근 3개월 IPO 시장은 지수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3개, 코스닥 47개 업체가 총 1조 1,650억원의 공모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10월 지수 급락을 겪으면서 공모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으나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시장이 바닥을 다졌고 이에 따라 공모기업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부문]

10월 미국 금리는 3분기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견실함을 보이면서 7년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금리에 부담감을 느낀 주식시장은 10월 중순 이후 급락하였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Risk off 심리가 퍼지면서 미 금리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금리는 월초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월중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가 하락하였고, 월중반이후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가가 급락하면서 금리가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11월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지만 미국 금리의 하락세 및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금리는 월초 비농업고용 증가수의 예상치 상회로 3.23%까지 상승하였지만 민주당의 하원장약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 유가 급락, 파월 연준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미 금리의 하락세에 연동되어 국내 채권시장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 미국 채권시장은 경기둔화 가능성,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리는 이러한 글로벌 채권금리 하락세의 영향을 받으며 연 저점을 뚫고 하락했으며 한은의 2019년 금리동결 가능성을 채권가격에 반영하기 시작, 기준금리와 기타 만기 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2년래 최저수준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당사는 3분기부터 지속되어온 강세장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을 고려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소폭 상향 조정한 후 추가적인 전략실행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월초 시작된 글로벌 주가 급락과 이에 대응한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절로 국내 채권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종목매수를 통한 듀레이션 상향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지표 발표 및 글로벌 금융시장 가격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준위원 및 금통위원의 발언을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전략실행의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 부문]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12월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며, 19년 연간 수출감소의 신호탄을 보였습니다. 19년 전체 상장기업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나 2017~2018년 기업이익증가의 상당수가 반도체 업체에 의한 것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 외의 업종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인 것을 생각했을 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SOC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KOSPI의 2019년 순이익 전망치는 145조원으로 낮아져, 12개월 예상 PER 8.6배 수준이고, PBR은 0.85배 수준입니다. 자산기준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황이나, 글로벌 교역 활력도가 악화될 경우, 순이익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다만, 1,2월 미국과 중국의 회사채 시장의 롤오버가 마무리 되고, 금리 인상 시그널이 완화되면 반등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의 약세전환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엔고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펀드는 그 동안 비중을 늘려온 방어주의 비중을 다소 축소하고,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모주 부문]

정부정책 방침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 및 코스닥 이전 상장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공모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코스닥 벤처펀드 신규 설정으로 치열한 수요예측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몇몇 기업의 경우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의 분위기에 의존하기보다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보다 나은 판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실체가 없거나 이익이 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문]

미국은 양호한 경기 흐름을 이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일부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과 소비가 견조합니다. 연준은 2019년 두번 정도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기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달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국내 시장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당기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 금리는 당분간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금리 레벨이 매우 낮고, 만기 구간별 스프레드도 매우 축소되어 있어서 당분간 금리 변동성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금리 방향성이 가시화 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도 한국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채권시장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산업생산, PMI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으나 고용과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한국은 수출과 소비가 양호하나 고용과 생산이 부진하며,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금리 방향이 상방 하방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경기 지표를 확인하면서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과거 금리의 만기구조가 평탄하다가 확대될 때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보수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보유이익 확보에 집중하고 국내 금리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	-2.88	-3.30	-3.98	-4.4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6	-0.62	-1.14	-1.76
비교지수 ^{주)}	-2.94	-2.68	-2.84	-2.65

구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	0.21	0.58	1.03
(비교지수 대비 성과)	-3.13	-4.54	-8.84
비교지수 ^{주)}	3.34	5.12	9.87

주)비교지수(벤치마크): 국공채 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7	6	0	0	0	0	0	0	0	1	-6	-7
당기	-47	5	0	0	0	0	0	0	0	1	-6	-47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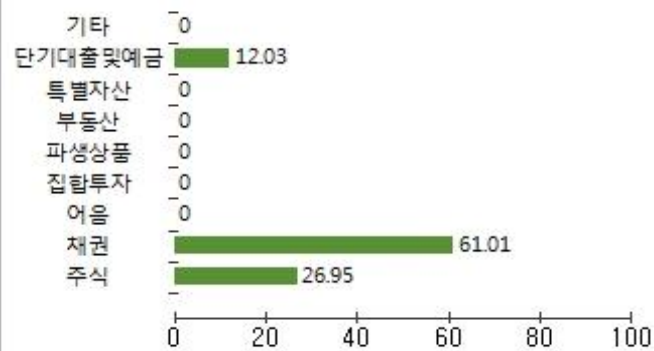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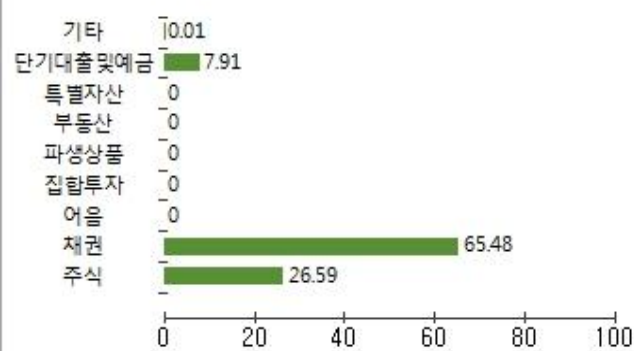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22	1,040								126		1,588
(1.00)	(26.59)	(65.4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91)	(0.01)	(100.00)
합계	422	1,040								126		1,588

*(): 구성비중

전기 자산별 구성비중



당기 자산별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17.48	6	유통업	7.76
2	금융업	11.33	7	운수장비	6.64
3	코스닥	10.13	8	음식료품	4.23
4	화학	9.37	9	철강및금속	3.81
5	서비스업	8.08	10	기타	21.17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모펀드 기준)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545	60	3.78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SK	42	11	0.71	대한민국	KRW	금융업	
삼성물산	86	9	0.58	대한민국	KRW	유통업	
LS	173	9	0.55	대한민국	KRW	금융업	
대림산업	77	8	0.49	대한민국	KRW	건설업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 채권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500-1906(16-2)	453	453	대한민국	KRW	2016. 6. 10.	2019. 6. 10.		N/A	28.52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2015-2	324	327	대한민국	KRW	2015. 2. 4.	2020. 2. 4.		AAA	20.60
통안02060-1912-02	259	260	대한민국	KRW	2017. 12. 2.	2019. 12. 2.		N/A	16.36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REPO매수	KB자산운용	2018. 12. 24.	104	1.92		대한민국	KRW
예금	KEB하나은행(유주얼)	2012. 4. 1.	20	0.10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출생 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7	6,717,723	1	8,092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39	1,605,413	0	0	2110000545
배혜려	부책임운용역	1984	12	61,523	0	0	2116000483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16.08.31. ~ 현재	심창훈
책임운용역	2016.08.31. ~ 2017.11.16.	김대환
책임운용역	2007.06.20. ~ 현재	허남권
부책임운용역	2016.08.31. ~ 현재	배혜려
부책임운용역	2014.10.13. ~ 2016.08.30.	장미
부책임운용역	2016.01.11. ~ 2016.08.30.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11.09.01. ~ 2016.01.08.	김창섭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	자산운용사		2	0.09	1	0.09
	판매회사		4	0.22	4	0.22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보수합계		5	0.34	5	0.33
	기타비용 ^{주2)}		1	0.06	1	0.06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2	0	0.01
증권거래세		0	0.03	0	0.02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구분	해당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주1)}	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	전기	1.5707	0.0000	1.5741	0.0628
	당기	1.5759	0.0000	1.5795	0.0633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22,830	772	33,128	686	20.71	83.07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채권혼합)

2018. 3.25. ~ 2018. 6.24.	2018. 6.25. ~ 2018. 9.24.	2018. 9.25. ~ 2018.12.24.
44.51	33.36	20.71

공지사항

1. 동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신영증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4.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께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 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자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청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